



대한축구협회가 에닝요(전북)의 특별귀화 후 대표팀 발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가 잘못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한심한 축구협... 기준도 절차도 없었다

무리한 에닝요 귀화추진 도마에

한국어 전혀 못하는 에닝요 자격 미달
기술의 조차 안 열고 협회 독단적 추진
한국축구 첫 사례 불구 여론수렴 외면
체육회 아닌 우회귀화도 가능성 낮아

브라질 출신 외국인선수 에닝요(31·전북 현대)의 특별귀화 추진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5월 초 대한체육회에 에닝요와 몬테네그로 출신 라돈치치(29·수원)의 특별귀화 추천신청을 했다. 라돈치치가 일본에 약 5개월 임대된 적이 있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A매치를 뛸 수 있다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귀화해도 최종에선 4개월을 뛸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협회는 뒤늦게 이를 확인한 뒤 8일 라돈치치는 철회하고 에닝요만 단독으로 추천신청을 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9일 에닝요의 추천신청을 부결했다. 그러자 협회는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다른 루트로 특별귀화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되는 일을 갖고 때를 쓰는 형국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운동선수의 특별귀화와 대표팀 발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추진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협회는 전후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일을 벌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별귀화 통과 가능성 희박

협회는 체육회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협회 김주성 사무총장은 "체육회는 스포

츠단체를 관장하는 기구로 가맹단체 입장에서 보면 부모나 마찬가지로. 가끔씩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는 잘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복수국적 취득제도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순수 외국인 선수에 대한 추천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체육회의 부결 논리는 타당하다.

김 총장은 이어 "특별귀화 신청은 여러 창구가 있다. 협회가 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일단 체육회 추천을 받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한 것뿐이다"고 했다.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다른 루트로 특별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별귀화 우수인재 추천권자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체육회장 추천서가 없어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장의 추천을 받으면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고 이를 통과하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특별귀화가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운동선수가 체육회장 추천서 없이 한국국적을 얻은 사례는 없다. 남자 프로농구 문태종과 문태영, 여자농구 김한별, 쇼트트랙 공상정 등 4명 모두 체육회장 추천서를 받았다.

만약 체육회장 추천서 없이 단독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돼도 통과 여부를 담당하기 힘들다. 법무부는 특별귀화 일반적 요건으로 '국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국적난민과 박상원 계장은 "특별귀화할 때 일반요건은 기본적으로 어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에닝요는 한국어를 아예 못 한다. 일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술위원회 절차도 무시

협회는 또 다시 절차를 무시했다. 협회 홍보관 기술위원장에 따르면 최강희 감독이 에닝요, 라돈치치의 특별귀화를 요청한 것은 최종에선 조 추천(3월9일) 직후다. 축구협회가 체육회에 공식적으로 두 선수 특별

■특별귀화의 조건들

체육회가 체육계의 최상급 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요건에는 ▲품행이 단정한 자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의 조건이 있다.

에닝요는 이 같은 기본 요건부터 채우지 못해 추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귀화추천신청을 한 건 5월 초다. 3월9일부터 5월 초 사이에 이 문제로 기술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 기술위는 9일이나 열렸다. 협회가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기술위는 뒤늦게 이를 추진한 꼴이다. 김주성 총장은 "이번 사항은 전력보장을 위해 코칭스태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선수 선발 기능을 갖는 기술위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 감독은 대표팀에 에닝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추후 대표팀 발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기술위에서 논의돼야 하는 게 맞다. 모 축구인은 "코칭스태프가 요청하면 협회 수뇌부가 승인하면 특별귀화가 곧바로 추진되는 게 맞은 절차인가. 당연히 기술위를 거쳐야 한다. 협회가 여전히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론수렴도 없이

한국축구 역사에서 외국인 선수 귀화를 해서 대표팀이 된 적이 없다. 벌써부터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 설전이 뜨겁다. 김주성 총장은 "국민정서나 여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관심이 많은데 협회 입장에서 좋은 선수가 대표팀에 뽑히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한국 축구는 협회가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김 총장의 말처럼 국민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태석 기자 sport@donga.com 트위터@Bergkamp08

은 인정한다. 그러나 같은 포지션(미드필드)에 국내 자원들도 충분히 있다. 한국 문화 적응, 미흡한 한국어 실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천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강희 감독이 월드컵 최종예선까지만 한시적으로 사령탑 직책을 수행한다는 의지를 표명해온 것도 에닝요의 추천이 부결된 요인 중 하나다. 에닝요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한국이 브라질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내도 에닝요가 본선 엔트리에 포함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 2010년 5월4일 복수국적제도 시행 이후 스포츠 분야에서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승인을 받은 4명의 체육인들 중 순수 외국인 이 없었는 점도 고려됐다.

체육회 최종장은 "현재로서는 체육회가 에닝요의 특별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축구협회가 재심 요청을 하면 같은 과정을 밟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수가 없는 한 체육회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 에닝요 귀화 불발... 최강희 감독 반응

“귀화 관계없이 대표팀 정상운영”



최강희 감독

에닝요가 귀화를 하고 국가대표로 뛰고 싶다는 의지를 지인들을 통해 연락을 해왔다. 이에 대해 홍보관 기술위원장과 논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귀화 선수의 첫 번째 조건은 절대적으로 경기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팀에 대한 희생과 국내 정서의 이해 등도 필요할데, 에닝요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 이

청용이 회복됐으나 과거와는 달리 측면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2월 쿠웨이트전 당시 선수들을 선발하다보니 부족함을 느꼈다. 큰 경기 경험과 중거리 슈트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선수가 필요해 귀화 요청을 받아들여 추진을 했다.

하지만 축구협회와 기술위원회의 요청이 대한체육회 나름의 판단에 의해 추진되지 못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어차피 최종 결정 기관은 법무부인데, 많이 아쉽다. 그래도 귀화가 이뤄지면, 안 이뤄지면 각각 준비를 하고 있어 대표팀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 박주영 발탁에 대한 최강희 감독의 생각

“박주영의 진정성 들어봐야 국내 기자회견 지켜보겠다”

9일 전북 에닝요의 특별귀화 추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표팀 최강희 감독의 진화는 오전부터 불이 났다. 최 감독은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에닝요의 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박주영(아스널)의 대표팀 발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강희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가 에닝요의 귀화를 강력하게 원했다던데.

"협회와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라돈치치와 에닝요의 귀화를 추진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래서 진행이 됐다. 그런데 라돈치치는 5년 동안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결격사유 생겨서 안 됐고... 왜 체육회가 자꾸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다. 에닝요가 한국말을 못 해서 그런 건가?"

-에닝요가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게 대표팀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한국말을 못 하니까 특별귀화 신청을 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에닝요 쪽의 의사나 의지를 모두 확인했다. 일단 본인이 강력하게 원했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국민정서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데, "조심스러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 국적을 자랑스러워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선수라면 팬들도 응원해주지 않을까."

-박주영의 발탁 여부도 관심사인데, "하하. 내 입으로 뽐냈다 안 뽐냈다고 단언한 적이 없는데 언론이 자꾸 앞서 가는 부분이 좀 있다."

-박주영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하지 않나. "맞다. 분명히 박주영의 진정성을 들어봐야 한다. 박주영이 곧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하니 지켜보겠다. 이와 별개로 박주영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루트로 의사타진을 해 봤고 그 것에 대한 답변도 올 것이다."

윤태석 기자

1 에닝요 한국문화 적응 미흡 2 외국인에 복수국적 허용 부담

■ 귀화추진부터 대한체육회 거부까지

최강희감독, 조 추천 후 협회에 요청
라돈치치, J리그 임대 걸림돌로 작용
에닝요, 한국어 능력 등 요건 충족 못해
재심 해도 체육회 입장 변화 없을 듯

대한체육회는 대한축구협회가 요청한 브라질 국적 에닝요(31·전북 현대)에 대한 특별귀화 추천 신청을 부결했다. 체육회는 9일 오후 축구협회에 '에닝요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순수한 외국인으로 이중 국적을 취득할 경우 혼란이 따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전례도 없이 무리하게 귀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법적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에닝요의 특별 귀화 추진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귀화 추진 어떻게 이뤄졌나?

에닝요의 특별귀화가 추진된 시점은 2월29일 쿠웨이트와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6차전(2-0 승)이 끝난 직후였다. 조광래 전 감독으로부터 대표팀 지휘봉을 이어받은 최강희 감독은 월드컵 최종예선 조 추천이 끝난 뒤 대표팀의 전력 극대화를 위해 에닝요와 라돈치치(29·수원 삼성)의 귀화를 추진해줄 것을 축구협회에 요청했다. 축구협회 홍보관 기술위원장은 9일 파주NFC에서 열린 기술위원회를 마친 뒤 "(최강희) 감독님께서 두 선수에 대한 귀화 요청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지난 주 '에닝요와 라돈치치가 월드컵 최종예선을 위해 꼭 필요하니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뜻을 체육회에 정식으로 전달했다.

체육회는 두 선수에 대해 ▲K리그 소속 클럽과의 합의 여부 ▲과거 귀화 신청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법적 상벌위원회의 복수국적 취득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했고, 7일 오후 법적 상벌위원회를 열어 두 선수와 면담을 했다. 여기서 추천 대상으로 결정된 건 유망한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은 라돈치치였다. 하지만 라돈치치는 2007년 7월 일본 J리그 반포레 고후에 5개월 임대된 것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먼저 받을 뻔 쪽은 축구협회였다. 체육회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조중연 축구협회장은 최종선 사무총장에게 유선으로 라돈치치 귀화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전했다.

●에닝요 특별귀화 추진 부결 배경

대상자가 에닝요 한 명으로 좁혀졌으나 특별귀화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다. 체육회는 "선수 실력

편집 | 안도영 기자 ydo@donga.com 트위터@sd_c02